濟州人의 日本渡航 硏究

전은자*

<차례>

Ⅰ. 머리말
Ⅱ. 조사과정
1. 조사방법
2. 면담대상자의 특성
Ⅲ. 도항의 정의와 분류
1. 도항의 정의
2. 도항의 분류
Ⅳ. 도항의 동기와 경로
1. 도항의 동기
2. 도항의 경로
Ⅴ. 일본생활
Ⅵ. 귀국과 정착
Ⅶ. 맺는 말

국문요약

제주사람들의 일본 도항은 조선말기, 즉 일본 명치시대(明治時代)부터 시작되어 한일합병이 된 일제강점기에서 해방 전까지 그 빈도가 점점 높아졌다. 일본은 한반도 본토보다 선진산업이 활발하게 가동되고 있었으며 지리적으로도 제주와 가까워 제주사람들에게는 현금획득을 할 수 있는 매력적인 노동시장이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제주사람들이 일본으로 도항하여 그 곳에 정착하거나

* 제주대학교 박물관 특별연구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귀향하기도 했다.

특히, 일본 오사카(大阪)에는 해방 전부터 상당수의 제주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고 그 연고로 인해 많은 제주사람들이 오사카로 도항을 하게 된 것이다. 즉 제주와 오사카 간에는 이미 일제 강점기부터 제주사람들 간의 사회 연결망이 형성되어 있었으며, 사회적 동질감이나 동향 의식 등의 연대감으로 원활한 커뮤니티가 이루어져 왔다.

제주사람들에게 일본은 한반도 본토보다도 경제·사회적으로 더욱 가까운 노동대상지(勞動對象地)이자 제주의 경제적 빈곤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의 땅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본 연구는 일본으로 도항했다 귀향한 제주사람들 16명을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하여, 일본으로 도항했다 귀향한 제주사람들의 알려지지 않았던 기억의 역사를 역사의 지표로 떠오르게 한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 시작했다. 따라서 일본으로 도항했다 귀향한 조사대상자들이 무슨 이유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도항을 했는지, 그리고 일본에서의 그들의 생활 상태와 귀향 후 제주에서의 생활상은 어떠했는지 그들의 변화된 삶의 다양한 모습을 고찰해 보았다.

면담대상자 대부분은 재일제주인의 도움과 자신의 노력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 합법적 도항자들은 학업성취와 선진문물 견학이라는 효과를 얻고 돌아와, 그 경험을 바탕으로 상업에 종사하거나 정치인, 교사가 되어 제주사회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며 살아왔다. 비합법적 도항자들은 밀고의 시달림 속에서 일하며 저축한 돈으로 자녀교육비 충당, 주택마련 등의 경제적 기반을 다질 수 있었다. 또한 귀향해서는 일본체류기간 동안 익힌 일본어를 활용해 관광업에 종사하거나, 학업을 계속하는 가운데 사회봉사활동을 하며 우리 사회에 공헌하며 살아가고 있다.

도항은 도항자 당사자에게는 목숨을 건 월경(越境)이었다. 온갖 회생을 치러내고 벌어온 그들의 경제적인 재화는 오늘날 제주사회의 밑거름이 된 것이 사실이다. 그들의 노고는 자신이나 가족을 넘어서 제주 지역 공동체로 이어지는, 새로운 의미를 갖는다. 그러므로 제주사람들의 일본도항은 도항자 개인의 문제인 동시에 또한 재일제주인과 제주사회 공동체의 사회적 문제이기도 한 것이다. 오늘날에도 제주사람들은 도항의 형식만 다를 뿐 여전히 선진문물을 동경하거

나 임금노동을 위해서 환율이 높은 일본자본주의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도항을 하고 있다.

주제어 : 일본, 제주, 도항, 귀향, 제주사람들, 재일제주인, 오사카, 밀항, 합법적 도항, 비합법적 도항, 불법체류자

Ⅰ. 머리말

제주의 많은 가정이 재일제주인 친인척을 두었거나 친구 혹은 지인(知人)이 현재 일본에 거주하고 있다. 또한 제주에는 일본으로 도항(渡航)했다 돌아온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 오히려 재일제주인 보다 일본으로 도항했다 일본에 정착하지 않고 돌아온 사람들의 수가 많을 것이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연구 자료는 찾아보기 힘들다. 지금까지 재일제주인에 관한 연구로는 강재언의 「재일한인의 갈등과 도전」과 고선휘의 「在日濟州島出身者の生活過程-關西地方を中心に」 등이 있다. 그러나 일본으로 도항했다 귀향한 사람들에 관한 연구는 없다. 그들의 도항은 전적으로 개인적인 경험으로 간주되어 표면화 되지 못하고 다만 그들의 기억 속에 내재해 있었기 때문이다.

개인적인 기억은 본질적으로 파편적이고 무의식 상태에서 머물러 있지만 그 기억이 가족, 사회, 국가와 같은 특정 집단 차원의 이익과 목적의식에 부합됨으로써 사회적 의미를 갖게 되면 그것은 집단기억(collective memory) 혹은 사회기억(social memory)으로서 확장된다(김성례, 1999:247).

제주도(濟州島) 사람들의 일본도항은 조선말기, 즉 명치시대(明治時代)부터 시작되어 해방되기 전까지 그 빈도가 더욱 높아졌다. 그리고 해

방 후에도 방법을 달리하며 도항은 계속되었다. 이렇듯 제주와 일본은 근대이후 다른 어느 나라, 혹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서로의 왕래가 빈번하였던 것이다.

본 연구는 일본으로 도항했다 귀향한 제주사람들[1]의 기억의 역사를 역사의 지표로 떠오르게 한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 시작했다. 일본으로 도항했다 귀향한 조사대상자와의 면담을 통해서 그들이 무슨 이유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도항을 했는지, 그들의 일본에서의 생활과 귀국 후 제주에서의 생활상의 변화는 어떠했는지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 조사 작업은 장기간에 걸쳐 좀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나 이번 조사는 제주인의 일본도항, 특히 밀항연구를 위한 초보단계에 머무는 한계성을 지니고 있다

Ⅱ. 조사과정

1. 조사방법

나는 '제주사람들의 일본도항 연구'를 위하여 일본으로 도항했다 돌아온 제주사람들을 직접 만나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제주에는 일본 도항경험이 있는 사람이 상당수 있다는 말만 공공연하게 회자될 뿐, 그에 대한 근거자료가 없기 때문에 도항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직접만나 당시의 생생한 이야기를 기록하여 표면화하기 위해서였다. 면담조사는 2007년 4월~7월에 걸쳐 이루어 졌다. 20명의 인터뷰를 마쳤으나 4명은 조사내용과는 상관없는 대화로 끝났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16명을 면담

1)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대상자로 한정했다.

조사대상자의 연령범위는 2007년 현재 70세 이상으로 정했다. 그 이유는 1945년생의 연령이 2007년 현재 만 62세이므로, 1945년 당시 연령이 적어도 만 8세 이상이 되어야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 도항했던 부모의 기억 혹은 자신의 도항에 대한 기억을 되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조사에 착수해 보니 불법체류자인 경우는 70세 이하가 훨씬 많았다. 현실을 감안하여 70세 이하의 조사대상자도 4명을 포함시켰다.

그리고 70세 이상의 일본도항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갖고 있는 곳은 한군데도 없었다. 때문에 일괄리스트를 뽑아서 일부를 선정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결국 아는 분들의 소개로 조사대상자를 만나기로 했다.

나는 먼저 소개자에게 조사대상자에게 면담조사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도록 부탁한 다음, 내가 다시 조사대상자의 증언이 학술적인 목적으로 쓰일 뿐이고 면담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않겠다고 누누이 설득해서야 면담조사를 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조사대상자들은 자신의 신분과 프라이버시가 노출되는 것을 꺼려했다. 녹음기를 준비해 갔으나 대개 녹취를 하지 말라고 하여 조사대상자의 반 이상은 필기에 의존해야 했다.

면담 예정인원의 반 정도의 인터뷰를 진행하던 중에 H씨로부터 제주의 관광업계에도 도항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다. 그들 중에서 인터뷰할 사람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단 한 명도 면담할 수가 없었다. 결국 처음으로 돌아가 개인소개를 받아 면담조사를 실시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면담했던 사람의 소개로 새로운 면담자를 만나게 되는 경우가 늘어났다. 거기

에다 소개자가 합석을 하게 되면 단독으로 면담할 때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게 되는 이점도 있었다. 이 점에 착안하여 여름철 농한기에 각 마을의 쉼터와 노인 회관, 해녀들이 모여 있는 곳 등을 직접 찾아 나섰다. 예정에 없던 스케줄이 잡혀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면담이 끝난 후에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자 "별것도 아닌 것을 귀하게 여겨주고 우리의 입장을 이해해 주니 오히려 우리가 감사하다"고 했다. 어떤 면담대상자는 "언젠가 나를 비롯한 도항자의 이야기를 책으로 쓰고 싶었다"라는 말을 남기며 그 일을 대신 해달라는 당부까지 했다. 또는 "우리가 어떻게 고생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너무 고생도 모르고 부모들의 삶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으니 안타깝다"고도 했다. 조사대상자 대부분은 상당히 예의바른 모습을 보여 주었으며 도항해서 옆에서 지켜본 일본사람들로부터 배울 점은 정직과 친절 그리고 성실함이라고 했다.

2. 면담대상자의 특성

〈표1〉 면담대상자인 도항자의 인적사항(2007년 현재)

번호	성별	이름	출생년도	도항년도	출신지	도항지	일본체류기간	직 업		
								도항 전	일본에서	귀향 후
A1	남	김○○	1919	1929	와흘	시가현	6년	서당에 다님	초등학생[2]	농업
A2	남	김○○	1923	1930	조천	오사카	5년	취학 전	초등학교 졸업	농업
A3	여	문○	1922	1933	모슬포	오사카	4~5년	초등학생	초등학생	상업
A4	여	진○○	1922	1935	제주시	오사카	17년	무직	슬리퍼 공장	심방[3]
A5	남	양○○	1936	1941	서귀포	오사카	1~2년	미취학하동	미취학아동	정치인
A6	남	고○○	1931	1941	영락리	오사카	6년	초등학생	초등학생	농업
A7	남	현○○	1923	1938	서귀포	나고야	8년	초등학생	유학생	초등학교 교사

A8	여	이○○	1926	1938	외도	오사카	7년	초등학생	주물공장	상업
B1	남	고○○	1925	1965	모슬포	오사카	12년	농업	고무공장	상업
B2	남	고○○	1928	1965	한림읍	오사카	13년	어업	제화공	농업
B3	남	송○○	1930	1971	제주시	오사카	28년	공무원	파칭코	무직
B4	남	홍○○	1946	1972	김녕	오사카	6년	회사원	구두공장	관광업
B5	남	황○○	1946	1972	김녕	오사카	9년	농업	미싱일	.상업
B6	여	박○○	1932	1981	화순	도쿄	5년	무직	식당	무직
B7	남	신○○	1940	1984	구억리	오사카	1년	농업	고무공	농업
B8	여	고○○	1962	1990	제주시	요코하마	9년	미용업	미용업	무직

면담대상자 16명 중에서 해방 전의 합법적 도항자가 8명, 해방 후부터 90년대까지의 비합법적 도항자가 8명이었다. 성별로는 남자가 11명이고 여자가 5명으로 남자가 2배가량 많다. 여기에서는 합법적 도항자를 A로, 비합법적 도항자를 B로 분류하였다.

위 <표1>에서 A그룹은 일제강점기의 합법적 도항자이며 B그룹은 비합법적 도항자, 즉 밀항을 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위 <표1>에서 알 수 있듯이 A그룹은 도항 당시의 평균연령이 약 10세로 평균연령이 약 36세인 B그룹에 비해 도항 당시의 나이가 어리고 체류기간이 짧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그룹의 경우 A4[4]를 제외하고 나면 평균체류기간이 6년 이하이고, B그룹의 경우 B7[5]을 제외하고 나면 평균체류기간이 11년

2) 면담하는 과정에서 조사대상자들은 '소학교', '보통학교', '국민학교', '초등학교' 등의 용어를 사용했으나, 나는 논문에서 이것을 '초등학교'로 통일하여 사용하였다. 따라서 초등학교 학생도 '초등학생'으로 한다.

3) 제주의 '무당'을 말한다.

4) A4의 일본체류기간 '17년'이란 실제로는 심방으로서의 '일본왕래기간'에 해당된다. 시기는 대략 1982~1999년까지이다. '일본체류기간'으로 분류한 것은 인터뷰를 통해서 그 기간 동안은 제주에서 보다 일본에서 거주한 기간이 길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1935년에 첫 번째 도항을 했으나 몸이 아파 1~2년 만에 귀향했다.

이다. A그룹은 A4를 제외하고 나면 모두가 도항 전에는 취학 전 아동이었거나 초등학생이었다. 그들은 도항해서도 거의 학업을 계속했다. B그룹은 도항 전에는 3명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5명은 각기 다른 직업을 갖고 있었다. 도항해서는 B8[6]만이 도항 전과 같은 일을 했으며 나머지는 모두 도항 전과는 다른 일에 종사했다.

면담을 통해서 A그룹의 도항자들은 이미 부모나 형제자매가 일본에 체류하고 있었으며 일본에서 일정정도의 일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B그룹 중에서 B1, B2, B5, B6은 1~5년 간격을 두고 부부가 모두 밀항한 경우이다. 교통수단으로는 A그룹은 도항 시와 귀향 시에 모두 배[7]를 이용하였고 B그룹은 도항 시에 B1~B5는 배를, B6~B8은 비행기를 이용했으며 B그룹이 귀향할 때는 모두 비행기를 이용하였다.

도항지로는 A1, A7, B6, B8을 제외하고 나면 모두 오사카(大阪)이다. 이는 해방 전부터 상당수의 제주사람들이 오사카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그 연고로 인해 많은 제주사람들이 오사카로 도항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즉 제주와 오사카 간에는 이미 해방 전부터 사회 연결망이 형성되어 있었으며 이를 통해서 원활한 커뮤니티가 이루어져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문경수(2001)에 의하면 오사카 거주 한국인 가운데 제주도 출신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920년대에 30~40%, 30년대에는 20~30%로 추정되고 숫자상으로 '오사카 거주 한국인' 중에서 경상남도 출신자와 함께 쌍벽을 이루었다고 한다. 1922년 오사카에 도항한 제주인도 1년에 3,500명 수준에서 3만여 명 수준까지 증가되었고 재일 제주인은 1만여 명에서

5) B7은 브로커가 만들어준 여권을 소지하고 도항했다가 불법체류자로 남은 경우인데, 이번 조사대상자 가운데 도항해서 1년 만에 밀고를 당해 귀향한 드문 케이스이다.
6) B8은 도항 전부터 일본에서의 직업을 계획하고 도항한 케이스이다.
7) 본 논문 Ⅳ의 '3. 도항의 경로'에서 배의 종류 등을 참조바람.

5만여 명으로 늘어나 1933년에는 제주도 인구의 4분의 1이 일본에 있게 되는 지경에 이른다. 같은 오사카에 살면서도 제주도 출신자는 다른 지역출신자와 거주지역이나 직업, 생활 형태를 달리하는 경향이 있다. 남자는 직공, 여자는 방직공이 그 당시 제주도 출신자들의 대표적인 직업이었다. 이들 직업은 토목이나 건축에 종사하는 경우보다 정착성이 높으며 이로 인한 정주화(定住化)는 공동체 형성의 기초이기도 했다. 30년대 중반 이후에는 오사카를 중심으로 제주도 출신자들의 확고한 공동체가 뿌리 내리고 한·일간의 경계를 넘어 제주도민들의 생활권의 일부가 되었다. 또한 이 공동체는 4·3사건을 전후하는 시기에는 제주도에서 건너온 밀항자들의 피신처가 되기도 했다(문경수, 2001).

Ⅲ. 도항의 정의와 분류

1. 도항의 정의

도항(渡航)이라는 말은 이미 중국 양서(梁書)에 '20만의 무리들이 외치면서 싸움을 하기 위해 바다를 건넜다(衆號二十萬渡航請戰)'라는 기록에서 살필 수 있다(張三植, 1988:1040). 그리고 조선시대 유학자인 이락정(二樂亭) 신용개(申用漑, 1463~1519)의 『이락정집(二樂亭集)』 가운데 4언 율시 「次蕭海釣和謝祭酒韻」에 '날이 저물어 바다를 건너듯 들판을 가로지르지 못했네(日暮虛橫野渡航)'라는 시에서 보듯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넘'이라는 뜻을 가진 '도항'이란 용어는 일찍부터 사용되어 왔다.

1930년대 후반의 제주도 풍속을 정리한 일본인 이즈미 세이치(泉靖一)의 『제주도(濟州島)』에는 '제주도에서 일본으로 도항(渡航)한 사람

은.....', 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석주명(石宙明)의 『제주도 수필(濟州島隨筆)』에는 '오사카와 제주 간 직접항로가 개시되어 도항자(渡航者)가 격증하여.....' 제주도 당국자가 「제주도일본도항자조합」을 결성하여 '도항증(渡航證)'을 1장에 1원에 판매하여 연간 수입이 1만 2천 여원에 이르렀다고 1927년 5월 17일 동아일보 기사를 소개하고 있다(석주명, 1968:188).

대체로 도항이라는 말은 근대 이후에 개념이 명확해졌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 비행기가 등장하기 이전에 일본으로 간다는 의미를 도항이라고 한 것을 보면 배를 교통수단으로 할 때 정립된 용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도항의 수단이 배를 타고 건너는 것에서 배와 비행기를 타고 도항하는 것으로 확대 되었다.

우리나라 국어사전에 도항(渡航)이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넘'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도항을 단순하게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넘'이라는 뜻으로만 해석할 수는 없다. 도항에는 개인적인 목적은 물론 사회적인 요인에 의해 바다를 건너야하는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국어사전[8]에는 도항이란 '배나 항공기를 타고 바다를 건넘', 혹은 '해외로 나감'[9]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또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도항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도항'이라는 용어는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일찍부터 사용되어 왔으나 그에 대한 정의가 따로 없으므로 나는 여기에서 도항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바다를 건너는 것'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도항은 제주에서 일본으로

8) 新村出/編(1998), 「廣辭苑」 第5版、岩波書店。

9) 상게서에 실린 도항에 대한 일본어 원문은 '船や航空機で海をわたること'、'海外へ行くこと'이다.

건너가는 것을 가리킨다. 나는 도항을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의 이동이라기보다는 바다를 사이에 둔 어느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으로 인식한다.

2. 도항의 분류

〈표2〉 시기별 도항의 분류

시 기	도 항 형 태	체 류 형 태	면담대상자 수
일제강점기	합법적 도항	합법체류	8
1945년~1965년	비합법적 도항(밀항)	불법체류	2
1965년 이후	합법적 도항	불법체류	3
	비합법적 도항(밀항)	불법체류	3

위 <표2>와 같이 제주사람들의 도항을 크게 합법적 도항과 비합법적 도항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합법적 도항은 해방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제주~일본 간 정기여객선을 이용한 도항을 말한다. 비합법적 도항은 '밀항(密航)'을 말하는 것으로, 밀항은 해방 후부터 '한일기본조약(韓日基本條約)'[10]이 체결된 1965년까지의 도항방법을 말한다. 1965년 이후를 다시 합법적 도항과 비합법적 도항으로 분류할 수 있다. 나는 1965년 이후 제주사람들의 도항 중에서 합법적 도항을 했으나 불법체류자로 남은 경우를 비합법적 도항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지금까지 정리한 용어의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합법적 도항'

10) 한일회담을 추진한 결과 1965년 6월 22일 한·일 양국정부는 14년 동안 끌어온 국교정상화교섭을 마무리 짓고, 한국의 외무장관 이동원(李東元), 한일회담 수석대표 김동조(金東祚)와 일본 외무장관 시이나 에쓰사부로[椎名悅三郎], 수석대표 다카스기 신이치[高杉晉一] 사이에 조인되었다. 흔히 '한일협정'이라고도 한다.

이란 법적으로 정해진 체류기간을 마치고 제주로 돌아오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도항증을 발급받아 일본에서 일정기간 임금노동[11] 등을 하고, 일제강점기에 제주와 일본 등지에서 운행되었던 군대환(君代丸)[12], 복목환(伏木丸) 등의 정기여객선을 타고 제주로 다시 귀향하는 경우를 말한다.

'비합법적 도항'이란 불법적인 도항을 뜻한다. 이는 다른 말로 '밀항'이라고 한다. 밀항에는 밀항선을 이용하는 경우와 대형 화물선이나 소형선박에 숨어서 가는 경우가 있다. 모두 알선비용[13]을 지불한다.

'불법체류자' 란 합법적 혹은 비합법적으로 도항했다가 체류기간이 지나도 제 때에 돌아오지 않고 현지에 머물러[14] 있는 경우를 말한다. 불법체류자는 다시 목적지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밀항자와 처음부터 불법체류 할 목적으로 합법적 절차를 거쳐 도항하여 체류기간을 넘기는 경우로 다시 분류할 수 있다.

---

11) 조사대상자 가운데 A그룹은 대부분 임금노동 등을 위해 도일한 가족 등의 방문을 위해 도항한 경우이다.

12) '군대환(君代丸)'은 일본발음으로 '기미가요마루'이다. 조사대상자에 따라 '군대환'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기미가요마루'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 여기에서는 '군대환'으로 통일하여 표기하기로 한다. 앞으로 나오게 되는 배이름도 마찬가지로 한국어 발음으로 표기하기로 한다.

13) 배삯과 밀항 추진비.

14) 제주의 도항자들은 불법체류를 '곱은다' '숨는다' '비자 꺾는다' '패스포트 엎은다'라고 한다.

Ⅳ. 도항의 동기와 경로

1. 도항의 동기

과거로부터 삼재(三災)의 섬으로 알려진 척박한 섬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제주사람들의 관심은 늘 밖으로 향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마스다 이치지[15](桝田一二, 1976)에 의하면 일본에서 제주 해녀의 출가지로 가장 오래된 곳은 도쿄(東京)의 미야케지마(三宅島)로 1903년 제주도 김녕의 사공 김병선(金丙先) 씨가 해녀 여러 명을 데리고 출가(出嫁)한 것이 시초가 되었다고 한다. 또한 제주사람들의 일본 공업계의 출가는 1911년부터 오사카의 방적업계 사무원이 직공모집을 위해 내도하는 것을 시작으로 근대 공업노동자로서 제주사람들의 일본도항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노동력이 부족해지자 당국은 1918년 2월에 조선총독부령 '노동자모집취체규칙(勞動者募集取締規則)'을 공포하게 된다(강재언, 2005:182). 이로써 소위 식민지법에 의한 합법적인 도항이 시작된 것이다.

경제적 궁핍으로 도항한 제주사람들에게 현금 소득의 효과는 더 많은 노동력을 재유인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이런 이유는 A의 부모와 친인척의 도항으로 이어졌고 나아가 A의 도항으로 연결되었다. 이러한 도항자들의 연결 관계는 표면화 되지는 않았지만 거대한 도항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음에는 틀림없다.

<표1>의 A그룹의 부모나 형제자매의 직업과 관련해서 A그룹의 도

15) 「제주도의 지리학적 연구」를 번역한 홍성목은 저자 '桝田一二'를 '마수다 이치지'로 표기했으나, 나는 최근의 '일본어 한글표기법'에 따라 '마스다 이치지'로 표기한다. 단, 참고문헌에서는 홍성목의 표기법대로 '마수다 이치지'로 소개한다.

항 동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1은 조부모가 일본에서 기름공장을 하고 있었으므로 학교교육을 받기 위해 도항했으며, A2는 부친이 군대환의 보이[16]로 일했으므로 일본에서 초등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A4는 언니가 있어서, A5는 부친이 유학생[17]이었으므로 5살 때 부친을 만나기 위해 도항한 경우이다. A6은 A6이 3세 때 돈을 벌기 위해 일본으로 간 모친[18]이 10세가 되도록 귀향하지 않자 부친과 함께 모친을 찾아 나섰다. 조사대상자 중에서 A7은 일본 유학생이었던 형의 권유로 유학을 간 유일한 케이스이다. A3과 A8은 부모와 조부모를 비롯하여 친척들이 상당수 일본에 거주하고 있었던 관계로 일본을 드나들게 되었다.

<표1>의 B그룹은 거의가 돈을 벌기 위해 도항을 했다. B4는 부산 영도[19]에서 일본에 대한 정보를 듣게 되면서 일본을 동경하게 되었다. 어느 날 영도에 출장 갔다가 일본어를 배우고 오겠다는 결심을 하고 밀항을 했다. B3은 공무원 생활을 청산하고, B8은 이미 직업을 정해놓고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하여 도항을 했다. B7은 1차 밀항을 시도했다 실패하고 다시 2차 때 브로커가 만들어준 여권을 가지고 도항을 했다.

다음은 B그룹의 인터뷰 내용이다.

> B1 생활이 곤란한 상태에서 6남매를 교육 시킬 일이 까마득했기 때문에 밀항을 결심하게 되었다.

16) 선원을 이르는 말로, 당시 군대환을 타게 되면 '보이'라는 말을 많이 썼다고 한다.
17) A5의 부친 그 당시 일본의 '입명관대학(立命館大學)'의 유학생이었다고 한다.
18) 그의 모친은 '방직공장'의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19) 당시 영도에는 일자리를 찾아 나선 제주사람들로 북적거렸다고 한다.

B2 결혼 전 일자리를 찾아 강원도로 가는 도중에 부산 영도를 들르게 되었다. 그곳에서 잠시 머무는 동안에 만나 결혼한 아내와 함께 강원도에서 오징어잡이를 하면서 생활했다. 그러나 강원도에서의 생활도 여의치 않자 23살에 제주로 내려왔는데 공교롭게도 4·3사건을 겪게 되었다. 혼란의 와중에 경찰이 되었으나 월급도 작은데다, 그것마저도 제 때에 나오지 않아 결국 밀항을 하게 되었다.

B5 1930년대 초반 도항한 중부(仲父)가 위독하게 되자 부친의 부탁으로 도항하게 되었다. 중부는 나병[20](문둥병, 한센병:Hansen's disease이라고도 함)에 걸렸다고 한다. 결국 중부는 돌아가셨고 그의 유언에 따라 김녕 공동묘지에 모셔졌다.

B7 첫 번째로 도항을 시도한 것은 1973년이었다. 과수원 판돈 20만~30만원을 가지고 부산으로 갔는데 마침 김대중 납치사건이 터져 부산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돈만 다 써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1984년에는 브로커가 만들어준 여권을 가지고 다시 도항을 했다.

B8 갑자기 가장의 역할을 하게 되자 집안 대사를 돌아보는 것이 힘에 겨웠고, 집안 살림살이도 힘이 들 때에 마침 아는 사람으로부터 일본 요코하마에서 클럽을 크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을 소개 받아 여성들을 상대로 미용업을 하기 위해 도항하였다.

<표1>의 A그룹이 가족이나 친척을 매개로 하여 도항한 반면, B그룹

20) 마스다 이치지(桝田一二)에 의하면, 도항자들의 나쁜 영향으로는 제주의 노동력 부족과 경제지상주의, 계급사상의 전파와 같은 정신적인 측면, 육체적인 측면으로는 질병을 들고 있는데, 질병 중 가장 많은 것이 풍토병인 각기병, 폐결핵, 위장병, 소화기병 등의 순이며, 화류병(花柳病;성병) 또한 많고, 전염병의 악성환자가 많다고 한다. 이는 오사카의 공장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나 생활조건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은 브로커를 통해서 주로 밀항을 하게 되었다. B그룹이 일단 도항에 성공하게 되면 일본에 있는 친인척의 도움으로 숙소와 일자리를 얻게 되었다.

2. 도항의 경로

일제강점기에 제주~오사카 간에 개설된 정식 항로는 다음과 같다.

1922년 아마가사키(尼ヶ崎) 기선회사는 919톤급 제1군대환을 제주~오사카 간 직행 항로에 취항시켰다.

1925년 제1군대환과 교체한 1,224톤급 제2군대환이 취항했다.

1924년 조선우선(朝鮮郵船)의 749톤급 함경환(咸鏡丸)이 제주~오사카 간 정기항로에 취항하다가, 뒤에 1,039톤급 경성환(京城丸)으로 교체하여 운항하였다.

1925년 가고시마(鹿兒島)우선(郵船)주식회사가 제주도와 오사카 간 항로에 추가되었다.

1930년 11월에는 제주도 출신들이 주도하여 제주도민의 자금을 모아 자주적인 동아통항조합(東亞通航組合)을 설립, 3,000톤급 교룡환(蛟龍丸)을 취항하여 제주도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그 후에 1,300톤급 복목환으로 바꾸어 취항했는데 3파전의 운임 경쟁이 치열하여 한 때 제주~오사카 간 여객 운임이 파격적으로 3엔까지 내려갔다. 제주~오사카 간 할인 경쟁에서 최후까지 남은 것은 아마가사키 선부의 군대환이었다(고선휘, 2006:44-45).

1934년 여객 운임을 살펴보면 조선우선(朝鮮郵船)의 경성환은 8엔, 아마가키 기선회사의 군대환은 16엔으로 협정하여 출항일도 전자는 6의 날에 후자는 1의 날에, 오사카로부터 매월 3회씩 취항하였다. 또한 제주

도 갈 때는 석탄을 싣기 위해 시모노세키(下關)에 기항하지만 돌아올 때는 직항이었다. 따라서 섬의 출가자들은 우선 오사카에 들렀다가 다음 목적지로 이동한다(마스다 이치지, 2005:71-72).

오사카에서 오는 배는 제주도 회선(廻線)을 위해 최초의 기항지가 김녕이 되며, 김녕 앞바다 1km 해상에 정박하여 종선(從船)[21]으로 승객과 짐을 내리고 다시 도항할 인원을 승선시키고 다음 기항지인 조천에 다시 입항하여 승객을 교체한다. 제주읍 산지항에 도착하면 저녁 무렵이 되는데 하루 정박하여 다음날 아침 다시 출항하여 애월, 한림, 고산, 모슬포, 서귀포, 마지막으로 표선을 들러 오사카로 향한다(마스다 이치지, 2005:52-54).

1939년 발행된 『濟州島勢要覽』에 따르면, 제주~오사카 간에 운행하던 제2군대환은 월 3회 운항하며, 운항일은 3일, 15일, 25일이다. 기항지로는 오사카, 시모노세키, 부산, 애월, 산지, 한림, 고산, 모슬포, 서귀포, 표선, 성산포, 김녕, 조천이다[22].

일본으로 도항하는 선박은 모두가 섬을 일주하여 10여 개소의 요소(要所)에서 수시로 화물과 여객을 승·하선 시키는 것을 상례로 한다. 그러나 본도(本島)는 사면이 외해(外海)에 면하여 항상 풍랑이 심하기 때문에 항해의 위험은 물론 설비가 불완전한 곳에 정선(停船)하여 낮과 밤의 구별 없이 화객을 취급하고 있어 항상 큰 위험을 느끼고 있다.[23]

---

21) 군대환과 같이 큰 배는 수심이 낮은 해안 가까이에 정박할 수 없으므로 포구마다 종선을 대어 승객을 실어 날랐다. 고광민(2004:80)에 따르면 김녕포구에는 종선자리가 있는데 종선자리는 말 그대로 종선을 대는 자리의 이름이다. '한개'로 들어오는 길목에 '한개골'이 있다. 植民地時代에는 큰 배는 '한개골'에서 있고 종선은 종선자리까지 왕래하며 도항자들을 실어 날랐다.

22) 제주도청(2005), "제주도세요람", 「제주도의 경제」, 홍성목 역, 제주시우당도서관. p.121.

<표1>의 A그룹이 이용한 정기 여객선을 살펴보면 A1은 경성환, A3은 군대환과 복목환을 이용했으며 A2, A4, A5, A7, A8은 모두 군대환을 이용했다. A6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면담을 통해 정기코스 이외의 기항지에서도 승선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곳은 A5가 배를 탄 위미, A6이 배를 탄 차귀도, A8이 배를 탄 외도이다.

다음은 A그룹의 인터뷰 내용이다.

A1 조천주재소에서 허가증명서를 받아 경성환을 타고 도항했다. 그 배를 타기 위해서는 5~6명씩 뗌마[24]를 타야만 했다. 바다 밑에 암반이 있기 때문에 조천 금당포에서 1Km지점에 정박한 경성환까지 뗌마를 이용한 것이다. 조천에서 군대환을 타지 못하면 성산포로 가서 탔다.

A3 군대환과 복목환을 탔다. 종선을 타고 군대환 근처에 가면 내가 어리니까 보이가 손을 잡아 군대환으로 확 잡아끌어 올리는데 굉장히 무서웠다. 군대환을 타고 가는 동안에 보이가 웃기고 춤도 잘 춘다. 대마도 거쳐서 시모노세키로 가는 군대환 탔던 생각난다. 대마도에서 잠시 배를 멈춰 세우면 작은 배에서 먹을 것 같은 히어뜩한 물건[25]들을 팔았다.

A7 서귀포에서 군대환 타고 갔다. 난 성산포 들르고 목포에 가서 미군들 쌀 같은 것을 싣고 가는 배를 탔다. 배 삯은 4원 정도였던 것 같다. 정원이 20~25명 정도였다. 나는 특3등을 탔다. 돈이 있어가 아니라 싼 곳이 만원(滿員)이었기 때문이다. 군대환은 아마가사키 기선회사에서 운영했다. 일본의 산바시(棧橋)라는 데가 군대환 대는 곳이다. 제주는 김녕으로 들어

23) 상게서, p.120.

24) 전마선(傳馬船)은 일본 발음으로 '뗌마센' 이다. 짐이나 소수의 사람을 운반하는 작은 배로 거룻배를 말한다, 뗌마, 뗌마부네라고도 한다. 여기서는 종선(從船)을 말한다.

25) 표준어로는 '잡동사니' 를 의미하는 제주방언이다.

온다. 해류가 김녕 오는 것이 가깝다는 얘기 들었다. 내가 갈 때는 목포 들러서 남해안 다도해와 시모노세키 들러서 오사카로 갔다.

합법적 도항의 목적지는 오사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제주~오사카 간 직항노선이 개설되었고, 이 노선으로 오사카를 경유하여 게이한신(京阪神) 등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것이 보통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헌이나 A의 면담내용을 모두 정리해 보면 배의 종류나 운임, 운행날짜, 기항지, 출항지, 코스 등에서 다소의 차이를 보인다. 그것은 기상 사정이나 승객의 유무여부, 화물운반 등 여러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배를 운행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표3〉 비합법적 도항의 경로와 알선비용

도항자	도항수단	출발지	기항지	도착지	소요일	알선비용	비고
B1	밀항선	제주	여수	오사카	모름	15만원[26]	
B2	밀항선	부산	통영(짐작)	오사카	모름	18만원	당시 부산 거주
B3	파나마운반선 (4,000톤)	제주	포항	홋카이도	2일	기억안남	밀항 당시 지참금은 4만엔
B4	화물선 (25,000톤)	부산	인천	미즈시마	3일	300만원	원래는 요코하마행
B5	화물선	제주	목포	요코하마	3일	일본돈 40만엔 한국돈 40만원	
B6	비행기	제주	-	오사카	1일	없음	정식여권 소지
B7	비행기	제주	-	오사카	1일	300만원	브로커가 만들어준 여권 소지
B8	비행기	제주	-	요코하마	1일	없음	정식여권 소지

26) 5년 후에 도항한 그의 아내의 알선비용은 35만원이었다.

위의 <표3>에서 알 수 있듯이 B그룹의 도항 경로와 알선비용은 다양하다. B4의 증언에 의하면 전문 밀항선은 50~60톤가량 되는 배를 밀항선 조직에서 빌려서 운행하는데 70~80명의 밀항자를 싣고 가는 경우, 일인당 배 삯은 70만원 정도라고 한다. B2와 B5의 증언에 의하면 전문 밀항선이 아닌 경우에도 실제로 배 안에 있는 물탱크 속에 숨어 밀항하는 경우가 많은데, 밀항자가 숨어 있는 사실을 모르는 다른 선원[27]이 물탱크에 물을 부어 그대로 익사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1980년대 이후의 도항은 60~70년대 도항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B6, B7, B8인 경우 모두가 비자를 받아 여권을 소지하고 도항한 후 15일의 체류 기간을 넘겨 여권 기간인 3년을 목표로 불법체류한 사람들이다.

다음은 B그룹의 인터뷰 내용이다.

B4 부산~요코하마 사이의 25,000톤급 화물선(무역선)을 타고 밀항했다. 배안에 있는 굵은 밧줄 타래 안에 둘이 앉아 있었다. 배를 타고 요코하마로 가는 도중에 짐이 없으니 미즈시마(水島)에서 철근을 싣고 오라는 연락이 와서 우리는 미즈시마에서 내렸다. 난 일본에 연락처가 없었는데 같이 간 사람의 형이 데리러 온다고 해서 배에서 하루인가 이틀을 기다렸다. 배를 타서 일본까지 간 과정이 신기했다. 선원증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우리가 일꾼이라 하니까 영도에서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다. 한 사람의 선원이 다른 선원들 모르게 우리를 데리고 갔다. 알선비용은 한 사람당 300만원이었다.

27) 전문 밀항선이 아닌 다른 배에 숨어 밀항하는 경우, 그 배에서 일하는 선원 전부가 밀항자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니라, 브로커에 해당하는 1~2명의 선원만이 그 사실을 알고 있다.

B7 1985년경 여름, 일본 오사카 어느 절간에서 초청하는 단체초청여권으로 다른 부락 사람들과 함께 스님 복장에 정식여권[28]을 소지하고 일본행 비행기를 탔다. 스님처럼 머리도 깎고 절에 올릴 떡도 해갔다. 절에서 3일간 머물다 각자 흩어졌다. 안내자가 제주도~오사카 간 비행기 알선도 해주고 일자리도 배치해 준다. 알선비용은 300만원이었다.

동생도 1984년 서귀포에서 배를 사가지고 밀항을 시도했다. 그럴 때는 던져버릴 것을 생각하여 낡은 배를 산다. 그런데 운이 나빠서 한국과 일본의 경계해역에서 배가 부서졌다. 선장이 옷 다 벗고 나무판자 잡고 헤엄치고 있으라고 했는데 여자들은 차마 옷을 벗지 못하고 모두 가라앉아 버렸다. 기록에도 없는 이런 경우가 많았다. 남자들이 무전을 치니까 일본사람들이 구해줘서 남자들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B8 관광비자로 갔다. 비자기간은 15일이지만 여권기간이 3년이라서 3년 체류할 계획이었다. 일본에서도 불법체류인줄 알면서 적극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 요즘 동남아 사람들이 불법으로 한국에 들어오는 것과 같다. 일본 갈 때는 자기 여권으로 나가지만 한국으로 들어올 때는 브로커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여권으로 들어오는 방법이 있다. 그 비용이 100만 엔이다. 한국에 들어와서는 도청에서 여권을 새로 만들어 나갔다.

B그룹의 도항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우선 도항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이다. 도항비용은 소개비와 운임이 포함 되어 있는데 시기 혹은 조건이나 경우에 따라 그 비용이 다르게 나타난다. 다음으로는 밀입국을 위한 출발지가 자주 변경되며 몇 사람의 손을 거쳐서 예상치 못한 배를 타거나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곳에 내려 곤혹을 치르기도 한다. 이는 한국의 출입국사무소나 일본 해양경찰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상황에 따라 행동하는 밀항알선업자들의 임시방편적인 대응 때문이다.

28) 브로커가 만들어준 것이다.

V. 일본 생활

도항에는 문헌에도 나타나지 않는 개인의 생생한 삶이 존재한다. 도항자들은 일본을 재화획득의 현장으로서 자신들에게 이로운 땅으로 인식하게 된다. 제주와 일본 사이에 가로놓인 현해탄[29]은 그들에게 국경으로 표현되는 경계선과는 상관없이 섬과 섬을 이어주는 교통로인 것이다. 이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진 제주사람들의 일본 노동시장으로의 진출은 새로운 삶의 출발이기도 했다.

〈표4〉 일본에서의 생활

도항자	기거형태	직 업	조력자	수 입[30]	고 충	도항효과
A1	조부모와 동거	초등학생	조부모	-[31]	'조센징'[32] 이라는 놀림	학업
A2	부친과 동거	초등학생	부친	-	-	학업
A3	가족동거	초등학생 (제주)	부친	-	오빠의 학업 반대[33]	선진문물 견학
A4	언니와 동거	슬리퍼 공장 심방	언니	17년간 6억원	-	-
A5	가족과 동거	미취학아동	부친	-	-	-
A6	고모 댁	초등학생	고모	-	-	선진문물 견학
A7	형과 동거	유학생	형, 선배	생활비와 학비	조선인 무시	학업
A8	가족과 동거	주물공장	부친	-	조선인 무시	선진문물 견학
B1	친척집	플라스틱 공장, 고무공장	친척	(일당)1,000엔~ (월)약 60만엔	언어, 밀고[34]	자녀교육과 주택마련

29) 겐카이[玄海]라고도 하며, 한국에서는 현해탄(玄海灘)이라고 한다. 동쪽의 오시마섬[大島]에서 서쪽의 이키섬[壹岐島]에 이르는 수심 50~60m의 얕은 바다로, 많은 섬과 암초가 산재한다. 겨울에는 북서계절풍을 강하게 받아 파도가 거세기로 유명하다. 해방 전에는 부산~시모노세키[下關] 간 연락선이 이 해역을 왕래하면서 한민족이 품었던 애환을 말없이 지켜본 역사의 현장이기도 하다.

B2	친척집	제화공	처고모	(월)5만엔~ 10만엔 송금	언어, 밀고	자녀 교육, 경제생활개선
B3	스미코미[35]	파칭코 러브호텔	친척	본인의 생활비	언어, 장시간노동	-
B4	친척집	제화공, 식당	사촌형	(월)3만8천엔~ 12만엔	언어, 밀고, 수면부족	자녀교육, 일본어 습득
B5	친척집	미싱일	외숙모	(월)15만엔 저축	언어, 밀고, 아플 때	자녀교육, 주택마련
B6	스미코미	식당	지인	-	짧은 비자기간	경제생활향상
B7	동생과 동거	고무공장	브로커	-	언어, 장시간노동	-
B8	지인의 집	미용업	지인	9년간 3억원 정도 저축	언어, 열악한 근무환경	경제적 기반 조성

위의 <표4>의 A그룹은 일본에서 학업이나 선진문물을 견학할 수 있었던 사실에 긍지를 갖고 있었으나, 일본인들의 '조선인에 대한 무시'의 기억이 강하게 남아 있었다. 면담조사에 따르면 일제강점기에 도항한 A1의 조부모는 기름공장을, A3의 부친은 와이셔츠 공장, A8의 부친은 전구회사를 경영하여 비교적 넉넉한 생활을 했다.

---

30) A4를 제외한 A1~A8의 수입은 부모 등의 수입을 말한다.

31) '-' 표시는 도항자가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한 부분이다.

32) '朝鮮人'을 일본발음으로 '조센징'이라 한다. 조선인을 비하해서 이르는 말이다.

33) 부친이 A3에게 '머리가 좋으니 일본에서 공부하면 큰 인물이 될 것'이라고 하여 일본에 갔으나, 당시 일본에서 중학교를 다니고 있던 오빠가 '여자가 공부해서 뭣하겠느냐'고 해서 일본에서 초등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제주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며 방학만 되면 일본에 갔었다.

34) 밀고를 하는 사람은 주로 '한국사람'이었다고 한다. 밀고이유로는 '밀항자에 대한 임금체불', '밀항자와의 채무관계', '이직(移職)의 우려가 있을 때' 등이라고 한다. 일본인이 밀고를 하는 이유로는 '고성방가' 등 질서를 어지럽힐 때라고 한다.

35) '住込み(스미코미)'란 직장 안에서 숙식을 하며 일하는 경우를 말한다.

A2에 의하면 일본사람들이 잘 아는 제주마을은 고내리, 법환리, 조천리라 했다. 그만큼 그 지역 사람들이 도항을 많이 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제주사람들은 일본에서 한국의 다른 어느 지역 출신들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인정을 받았다.

A2 난 조천사람이다. 그 당시 연북정[36]에서 일본어 시험을 봐야 일본에 갈 수 있었다. 일본에서 소학교를 졸업했다. 일본에서 제주사람을 좋아했다.

A3에 의하면 당시 오사카에는 김녕사람이 많았고 종달리, 구좌면 사람도 있었다. A3은 일본에서 학교를 다니지 않고 제주에서 학교를 다니며 방학이 되면 일본에서 생활을 했다. 자신과 마찬가지로 부모를 따라 도항해서 일본에서 유학한 남편과 제주에서 결혼을 했다.

A3 학교이름을 기억할 수 없지만 오빠(1919년생)는 일본에서 학교를 다녔다. 내가 일본가면 일본사람들이 가네모치노무스메[37]라고 했다. 일본사람들[38]도 시골에서 오사카로 와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A4는 조사대상자 중에서 유일한 제주의 심방이었다. A4는 도항하여 얼마 지나지 않아 몸이 아파 제주로 돌아왔다가 심방이 되어 60세부터 제주사람들에게 굿을 해주기 위해 일본을 왕래했다. 제주보다 일본에서

36) 연북정에 '주재소'가 있었다.

37) 일본말로 '가네모치노무스메(金持ちの娘)'란 부잣집 딸이라는 뜻이다.

38) 1925년 당시 오사카는 일본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밀집해 있는 세계유수의 도시로서 상업·금융의 중심도시일 뿐만 아니라 방직업과 기계공업 등의 공업지대를 가진 아시아 최대의 상공업도시이기도 했다. 오사카는 제주도와 오키나와의 값싼 노동력을 끌어들이는 동아시아의 국제도시였다. 여기에서 '일본사람'이란 주로 오키나와 사람이다.

의 체류기간이 길며, 일본 각 지를 다니며 굿을 해주었다. 여기에서 제주사람들은 일본에 가서도 여전히 굿을 통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해결하고자 했던 면을 엿볼 수 있다.

A4 17년간 일본을 드나들며 6억원을 벌었다. 오사카, 도쿄, 홋카이도(北海道), 센다이(仙台) 등 일본을 9개월, 6개월, 3개월 단위로 다녀왔다. 1월에는 8번 다녀온 적도 있다. 굿을 하는데 드는 비용이 500만원~700만원 정도 한다. 보통 굿은 9일~10일 걸려서 했다. 일본은 사업하는데 귀신을 모셔야 한다. 떼어 버리면 부자가 되지 못한다고 믿는다. 일본사람에게도 귀양풀이를 해주었다. 비용은 300만원~1,000만원 정도였다. 도쿄에 가면 한번에 70만 엔에 편도 비행기표도 제공해주었다.

A5의 부친과 A7의 형은 유학생이었다. A5와의 면담을 통해 1960년대 일본에서의 거류민단과 총련(總聯)의 활동상황을 알 수 있다. 일본 속에서 사는 그들의 정체성의 문제를 생각하게 한다.

A5 1960년 일본의 아사히신문(朝日新聞)의 '일본속의 조선'기사 중에 조선인학교 학생에게 목표에 대해서 물으면 "열심히 공부해서 조국건설 하겠다" 하였으며, 거류민단은 "일본인과 잘 어울리면서 사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북한에서는 조선인학교에 전적으로 투자했으나, 한국은 전혀 지원이 없었다. 거류민단은 국어를 외국어 가르치듯 1주일에 2번 정도 일본어로 가르쳤다. 반면에 조선인학교는 국어를 우리말로 매일 가르쳤다. 당시 북한은 일본에 있는 엘리트들을 스카웃 했다. 제주에서 일본으로 유학 간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북한이 무료교육 시켜준다 해서 북한으로 간 사람들도 있다.

A2의 부친은 군대환 보이, A4의 언니는 자개단추 공장 종업원, A6의

모친은 방적회사 종업원이었다. A7은 요즘으로 말하면 조기유학생이었다. 도항목적이 유학이었으므로 주위에 아는 사람은 모두 유학생이었다. 그들 몇몇 사람이 돈을 모아 우유 특판점을 운영을 하며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하여 학업에 정진하는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A7 서귀포 서홍리와 동홍리에서 유학을 간 사람이 10명 이상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선배 한명이 주동이 되어 명치(明治)우유 특판점을 했다. 아버지가 그 돈을 보내주기 위해 땅을 하나 팔았다. 선배가 사장역할하고 형님과 또 다른 선배는 아침에 배달을 했다. 우리는 우유 특판을 해서 한 달에 5원인 수업료를 내고 생활비도 충당했다. 내 역할은 야오야[39]에서 부식을 사다 식사준비를 하는 것이었다.

A8은 일본으로 유학 온 남편을 만나 일본에서 결혼을 했다. A3와 A8은 일본에서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생활했으며, 이들이 기억하는 일본에서의 제주사람들의 직업은 하숙집 운영, 고무공장, 신발공장, 가방공장, 주물공장, 선박업. 단추공장, 세탁소, 플라스틱 공장 등이다. 결국 일본사람들이 꺼려하는 일들을 그들이 담당한 것이다.

A8 일본 갈 때는 일본에서 서류 보내오면 그것을 순경이 확인해야 갈 수 있었다. 우리 친정 권당[40]들 다 갔다. 일제강점기라 조선 성(姓)을 쓰지 못하게 해서 '하세가와'[41] 라는 일본식 성을 쓰고 살았다. 일본은 전기불도 들어오고 여러 면에서 제주에 비해서 편리했지만, 한국사람에 대한 차별이 심했다. 도일 6년 후인 18살에 제주에서 유학 온 화가와 결혼했다. 결혼해

39) '채소가게'를 일본에서는 '야오야(八百屋)'라고 한다.

40) '친척'을 의미하는 제주도 방언이다.

41) 남편의 성(姓)씨가 '장'씨 였으므로 '장'자를 넣어 '하세가와(長谷川)'란 성을 썼다.

서도 오사카에서 미혼인 시누이와 함께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 결혼하고 남편은 1년 정도 징용을 다녀왔다. 해방이 되니까 3달 만에 제주로 돌아왔다.

B그룹은 모두 "돈을 벌기 위해서'라는 목적 하에 도항한 사람들이다. 도항해서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첫째가 언어문제였고 둘째가 밀고였다. 밀고를 당하게 되면 강제귀환 당하거나 주거지와 일자리를 옮겨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따라서 밀항자들에게 밀고는 정신적·경제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주는 것이었다.

B2 나보다 3년 먼저 도항한 아내는 고모네 가족과 함께 2층에 살고 있었다. 오사카 서성구라는 곳은 제주사람이 아주 많은 곳이었다. 한림, 조천, 함덕 사람은 물론, 김녕 사람은 전부 갔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그 사람들은 이미 등록이 있는 사람들이라 삶이 우리만큼 고달프지는 않았다. 처음에는 구두카피를 했다. 3년간 여러 가지 기술을 한꺼번에 익히려니 힘들었다. 4년 만에 밀고를 당했는데, 마침 아내는 아이 데리고 병원[42]에 가 있었고, 나도 밖에 있었기 때문에 도망가라는 연락을 받고 피했다. 13년 사는 동안에 밀고를 17번 당했다. 딸들을 고향에 맡기고 도항했기 때문에 생활비와 학비를 제주로 보냈다. 외환은행 또는 인편을 통해서 보냈다. 공식적으로는 한 달에 20만엔 이상은 보내지 못한다. 별의별 물건을 다 보내주지만 전기밥솥을 보내주면 제일 좋아했다.

B그룹이 일본에 도착해서는 주로 친척집에 기거하거나 스미코미로 있었으며, B그룹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은 직계가족의 도움을 받은 A그룹과는 달리 친인척으로 확대된다. 그만큼 제주사람들의 일본거주가 증

42) 불법에 해당되지만, '등록'을 가진 사람의 의료카드를 빌려 병원을 갈 수 있었다.

가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도항자들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부당한 근무조건 하에서 일을 했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에서 생활하는 가운데에서도 재일제주인이나 도항자들은 제주에서처럼 제사를 모시고 집 지을 때 성주풀이를 하거나 귀양풀이[43]를 하는 등, 비록 타지이지만 자신들의 문화를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B1 처음에는 플라스틱공장에 다니다 1년 후에 고무공장으로 옮겨 하루에 12시간씩 일했다. 일본사람들[44]은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일 잘하고 임금이 저렴한 밀항자들을 고용했다. 돈은 인편으로 아이들 이모에게 보내면 한국 돈으로 바꾸어 아이들에게 전해 주었다. 1년 정도 일을 배워 아내와 함께 신발공장을 차려서 제주사람 5명을 데리고 일했다. 한 달에 60만엔~70만엔 정도 수입이 되었다. 그 돈으로 아이들 전부 공부시켰다. 그러다 밀고를 당했는데 아는 사람의 보증으로 풀려나 도쿄로 가서 신발공장을 했다. 작업장만 만들면 되니까 공장 차리는 것은 간단했다. 일본에 있으면서도 제주 식으로 제사를 했다. 제삿날에는 아는 사람도 찾아온다. 제주사람 굿하는 거 좋아하니까 이웃에서 굿도 거의 매일 한다. 굿을 하기 위해 일본을 자주 출입하는 심방도 여럿 있었다.

B3 처음에 파칭코에서 일했는데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기계 고치는 일을 했다. 일본사람들은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교대로 일하는데 난 하루 종일 일했다. 그래도 일본인에 비해 돈을 적게 받았다. 그 곳에서 4~5년 일하다. 도쿄에서 러브호텔에 취직했다. 24시간 요를 교체하고 청소하다 보면 힘들다. 어느 날 보트경기 보러 갔다 전에 다니던 파칭코의 매니저를

43) '귀양풀이'란 죽은 자를 장례지내고 돌아온 저녁에 집에서 영혼을 달래주기 위해 치르는 굿이다.

44) 반드시 일본사람이라기보다는 '재일한국인'도 등록이 되어있기 때문에 자신들과는 처지가 다르다하여 일본사람이라고 지칭했다.

만났다. 군마현(群馬縣)에서 매니저 밑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일반사원보다 돈을 많이 받았다. 오모노(大物)[45]가 총련이었다. 동북과 관동지방에 40군데 파칭코를 소유하고 있었다. 3년쯤 일하다 총련학교 선생들도 친절했으나 총련이라서 그만 두었다. 도쿄에서 개인이 하는 파칭코에 들어갔다. 그러다 민단사람 알게 되어 가이바(買場)[46]에서 6년 일했다. 그런데 권총강도가 들어 돈을 털렸다. 금전적 손해를 보게 되어 그만두었다. 몸 아프고 위가 아파서 귀국했다.

B5에 의하면 말 모르는 밀항자는 식당가서 밥도 사먹지 못하고 빵으로 끼니를 때우는가 하면 아파도 병원에도 갈 수 없었다고 한다. 어느 날 누구에게 맞아 죽든가 실종이 되어도 어쩔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사람다운 생활이란 것은 꿈도 꾸지 못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였다고 한다.

B5 오사카에서 스미토모(住友)회사의 용접공으로 들어가 처음에는 14만엔 받다가 20만엔 정도까지 받았다. 2년 후에 미싱을 준비해서 재일교포와 고무슬리퍼 공장을 했다. 신원조회가 있기 때문에 등록 있는 사람과 같이 해야 한다. 한 달에 15만 엔 정도 저축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75년도에 1,450만원 주고 광양에 집을 샀다. 밀항하여 4년 만에 집을 사기는 어려운데 아내가 먼저 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75년도에 집사고 81년도에 자수해서 귀향했다.

B4는 도항하여 일본어를 습득하기로 결심한 경우이다. 금전적인 것도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일본어 습득을 위하여 일본에서 직장을 옮긴 특별한 케이스이다. 그는 온갖 고충을 감내하며 일본어 실력향상을 위하여 노력한 도항자이다.

---

45) '사장' 내지는 '회장'을 말한다.

46) 파칭코에서 이겼을 때 주는 '상품'을 돈으로 교환해 주는 곳이다.

B4 처음에 오사카로 갔다. 고향에서 사람이 왔다고 하니까 제주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제주소식을 듣고 싶어 했다. 사촌형이 하는 공장에서 와이셔츠 다리는 일을 했다. 3개월 만에 감기에 걸렸는데 형은 병원에 데리다 주지도 않고, 나보다 6개월 먼저 밀항한 친구가 와서 데리고 갔다. 폐렴이라 했다. 그 때가 가장 서러웠다. 처음에는 봉급을 8만엔 받다가 12만엔까지 받았으나, 일본말 배울 기회가 없어서 8개월 만에 동경으로 갔다. 도쿄 간다(神田)에서 이모가 중국집을 경영했다. 봉급은 작았지만 말을 배우기 위해서 그 곳에서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일했다. 점심시간이 바쁘니까 11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추가로 일을 했다. 그래도 봉급은 5만5천엔이었다. 처음에는 3만8천엔이었다. 진보쵸(神保町)에는 책방과 출판사가 많아서 좋았다. 전 세계 사람들이 책을 구하러 올 정도였다. 대학도 많아서 식당에도 대학교수들이 많이 왔다.

1973년 10월에 아내가 오사카로 밀항을 왔다. 처남이 먼저 밀항해서 해녀인 처남댁과 일본에서도 물질하러 다녔다. 처남도 선장이었으므로 함께 물질하면 공장 다니는 것보다 수입이 몇 배 좋았다. 처남이 세이코 손목시계를 사주었는데, 고장이 나서 시계방을 갔다 오는데 경찰차 안에서 4명의 순경이 나오더니 나를 잡았다. 경찰서에서 형사가 때리려고 하면서 직접적으로 조센징이라고 하는 것이 기분 나빴다. 그래서 묻는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특히 주소를 제대로 얘기하지 않았다. 함께 사는 밀항자들끼리 누구라도 걸리면 다른 밀항자들이 도망갈 수 있도록 3일간은 주소를 얘기하지 않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밀항자는 밤에도 깊은 잠을 이룰 수가 없다. 언제 밀고를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신발을 항상 창문 가까이에 두고 도망갈 준비를 해놓고 잠을 잤다.

1980년대로 접어들게 되면 단수여권과 단기비자로 도항하여 불법체류자로 남게 되는 경우가 급격히 늘어나는데 특히 식당이나 유흥업소 등에서 근무하는 여성의 증가가 눈에 띈다.

B6 식당에서 일하며 불법체류자로 있었다. 관광비자로 가면 3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다. 그 이상 체류하면 신고하고 나온다. 그런 경우 다시 들어가려면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야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일본 가서 일하고 오면 한국에서 일하는 것보다 수입이 훨씬 좋다.

B7 처음에 플라스틱 비디오 껍데기 만드는 데 다녔는데 하도 힘들어서 아는 사람에게 다른 일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했다. 옮겨간 곳의 사장이 동편 사람이었는데 스미코미였다. 낮에는 자기들 식구들이 일하고 밤에는 우리가 저녁 8시에서 아침8시까지 한다. 잠자는 곳은 공장 위층에 있었다. 밥은 저녁 5시와 밤 12시에만 주기 때문에 낮에 밥 없어 배고팠다. 어느 날 파칭코에 놀러 갔는데 한국말을 쓰니까, 누가 밀고를 했는지 나오는데 경찰이 백차로 막았다. 그 때 밀항자를 신고하면 5만 엔 주었다. 그래서 그것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이 있었다. 일본 가서 돈도 못 벌고 죽도록 고생만 했다.

B8 일본에 가서 1년 정도 지나니까 돈이 벌리기 시작했다. 돈은 미용재료상이나 식당을 통해 제주로 보냈다. 일본에서 전화 한통화만 하면 일본 측에서는 일본 돈을 받고, 한국 측에서는 그 날 시세로 계산해서 한국 돈을 가족에게 지불을 해주는 것이다. 2년 반 만에 제주에 한번 들어왔다. 그 때까지 저축한 것이 3,000만원 정도였다. 한국에서라면 어림도 없었을 것이다. 동생이 돈 관리를 해줬다.

나중에는 원룸을 얻어서 낮에는 피부 관리[47]를 하고, 밤에는 머리손질을 했다. 머리손질은 야매[48]로 한 것이다. 최고 하루 10만엔 정도 벌었다.

B그룹의 직업은 플라스틱 공장 근로자, 고무공장 근로자, 제화공, 파칭코 종업원, 러브호텔 종업원, 식당 종업원, 미용업 등 다양하다. 다양한 직업만큼 수입에 있어서도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는 B그룹의 도항

47) 정해진 몇 사람에게 피부관리를 해주고 월급을 받았다.

48) 일본말 '闇(야미)'를 이르는 말로서, 여기에서는 불법영업행위를 말한다.

시기가 1965년~1990년까지로 그 기간이 광범위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Ⅵ. 귀국과 정착

A그룹의 대부분은 부모와 함께 해방을 전후해서 귀향했다. 해방 후에는 선박업을 하는 사람의 배로 귀향한 경우가 있었다. A그룹의 도항자들은 귀향해서는 교육계와 정치계에 뛰어들어 사회에 공헌해 왔으며, 그 외에도 농업이나 사업 등을 하면서 보다 진취적인 삶을 살아왔다.

A1은 조부가 돌아가시자 16세에 귀향하여 조부모가 마련해준 돈으로 밭을 구입해서 부모와 함께 농업에 종사하다 32세에 철원 금화에서 5년간 군대생활을 했으며 화랑훈장을 받았다. A1은 일본에서 학업을 한 것이 평생에 걸쳐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A3의 부친은 일본에서 와이셔츠 공장을 경영하여 모은 돈으로 1930년 무렵 염돈에 학교를 세웠다. 일본에 가보니 제주의 교육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을 알고, 학교가 멀어 공부하기 힘든 염돈, 강정, 도순, 하원 등의 부락사람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이다. A3은 일본에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온 남편과 일본에서 보고 들은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을 해 경제적으로 윤택한 생활을 했다. 일본에는 그 때 도항했던 친척들이 남아있어서 현재도 계속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A5의 부친은 일본 유학 후 해방직전에 들어와 공무원과 교사생활을 하다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검사로 재직하다가 1949년 4·3사건 때 현직 검사로서 고문 받았다. A5는 부친의 뜻을 이어받아 정치계에 투신하여 정부 차원에서 4·3의 진상이 밝혀질 수 있도록 '제주 4·3사건 진사보

고서'가 채택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

A6은 귀향 후 일본에서 갖은 고생을 했던 기억을 잊지 않고 도항전보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더욱 열심히 농사와 옹기 만드는 일에 종사하며 살고 있다. 일본사람들의 근면함에 탄복했다고 한다.

A7은 유학 중에 제주로 들어와서는 전라남도[49]에서 실시하는 공무원 시험을 치뤄 1년 동안 공무원생활을 했다. 해방이 되자 일본 유학한 것을 근거로 교직생활에 몸을 담았다. 교육청 장학사를 거쳐 초등학교 교장으로 정년퇴직을 했다. 유학의 경험을 되살려 후학양성에 힘써왔다.

A8은 화가인 남편과 함께 해방을 맞이하여 제주로 왔다. 제주에서 남편은 고등학교 등에서 미술교사로 재직했고 기록으로 남은 전시만도 4번을 했다. 교사의 월급이 적어 A8도 장사를 했다. 일본에서 20년 이상 전구공장을 하던 부친은 직업병으로 인하여 귀향했다. 귀국 시에 일본에서 영장(靈葬;葬禮)도구를 사 가지고 와서 마을 사람들이 모두 빌어다 썼다.

B그룹은 자수를 하거나 밀고를 당해 귀향했다. 밀고를 당한 불법체류자들은 수용소를 거쳐 강제 귀환했다. B1은 귀향할 때에 일본 돈 600만 엔[50] 정도를 가져왔다. 600만 엔으로 주택을 구입하고 사업을 해서 경제적 기반을 다졌다. B1은 지금도 '청소년선도위원'의 위원으로서 사회에 봉사하고 있다.

---

49) 행정구역상 1945년까지 제주도(濟州島)는 전라남도 소속이었으나, 전라남도에서 분리되어 도(道)로 승격되면서 1946년 8월 1일부터 제주도제(濟州道制)가 실시되었다.

50) 면담대상자 중에서 '밀항'으로 갔다가 밀고를 당해서 귀향하는 경우든, 자수를 해서 귀향하는 경우든 모두 본인이 모아서 가져오게 되는 현금에 대해서는 당시에 일본 측에서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고 한다. 귀향할 때 가져오게 되는 현금과 물품을 전부 보여주고 그대로 가져올 수 있었다고 한다.

B1 우리는 밀항으로 가서 집도 사고 아이들 공부도 시켰다. 일본 다녀와 건물사서 장사를 했다. 지금은 나와 함께 일본에 갔던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식당을 하며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느낀다.

B2는 귀향할 때 일본 돈 100만 엔 정도를 가져왔다. 13년 만에 귀향하여 배를 사서 운영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혼자서 3년 만에 다시 밀항을 했다. 도쿄에서 다시 구두카피를 했다. 밀항 온 젊은이들을 조수로 쓰면서 일을 하니 수입이 좋았다. 4년간 도쿄에서 일하며 가족에게 돈을 보내주다 밀고를 당했는데 마침 일본에서 척추수술을 받게 되었다. 수술 후 통원 치료하는 1년 동안에는 밀항자이지만 경찰서 같은 데에 불려가지 않았다. 현재는 청소년선도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 그는 자신이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봉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사는 것을 보람으로 알고 있다.

B3은 밀항하여 일본에서 30년 가까이 생활하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 귀향했다. 면담대상자 중에서 체류기간이 가장 긴 케이스이다. 일본 측에서도 불법체류인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의 한국처럼 3K업종[51]에 종사할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일본에 체류하는 동안 익힌 일본어를 활용해 제주를 찾는 일본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자원봉사 활동을 하며 지내고 있다.

B3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귀국했다. 일본 입관에 가서 귀국심사 하는데 몇 분 안에 금방 끝났다. 일본에서 보험카드 땜에 30년간 세금 낸 것 가져

51) '3K업종'은 한국에서 말하는 3D업종이다. '3D업종'란 영어로 힘들고(Difficult), 더럽고(Dirty), 위험한(Dangerous) 업종이다. 일본어로 힘들고(기쓰이-きつい), 더럽고(기타나이-汚ない), 위험한(기켄-危險) 업종이다. 세 단어의 첫 글자가 모두 '기'로 시작되기 때문에, '3D'와 마찬가지로 첫 글자를 따서 '3K'라 한다.

갔더니 금방 통과했다. 패스포드 만들기 위해서 영사관에게 돈을 주었다. 패스포드가 나오고 중앙정보부에서 조사하는데 수사과장이 금방 알아봤다. 내빈실로 통과하여 나리타공항을 출발하여 제주공항에 도착했다.

B4는 귀향해서 곧바로 관광업계에 발을 들여 놓았다. 밀항하여 습득한 일본어를 십분 활용해 수렵안내원을 했으며, 일본인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분야에서 전문가로서 활동했다. 지금도 일본인 관광객 전문가로서 활약하고 있다. 제주가 관광도시로 거듭나던 시기에 관광전선에서 활약했던 사람들 대부분이 일본도항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한다.

B4 밀고를 당해 일주일 만에 검찰로 넘어갔다. 형사가 한국말로 "한국사람이 일본에 와서 돈 벌어 가고, 기생관광해서 돈 벌어 들인다"고 했다. 그 말이 기분 나빠서 검사에게 형사라는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고 따졌다. 그랬더니 검사가 형사를 부르더니 사과하라고 했다. 난 밀항을 처음 왔지만 여러 번 와서 걸린 사람도 있었다. 조사 끝나고 얼마 있지 않아 귀향했다. 재일교포가 제주에 물적 기증도 많이 했지만, 도항했다 돌아온 사람들의 영향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재일교포는 많은 사람 중에 일부가 제주에 기증하지만 도항했다 돌아온 사람들은 거의가 돈을 벌어왔다.

B5는 귀향할 때는 300만엔 정도 가져왔다. 당시의 환율은 10,000엔에 32,000원 정도였다. 제주에 와서 그 돈으로 사업을 해서 기반을 잡았다.

여권법위반에 해당되는 B7은 밀항한지 1년 만에 밀고를 당하여 귀향했다. 스님복장을 하고 찍은 도항 당시의 단체 사진도 있었으나 너무나 고생이 심했던 기억을 되살리고 싶지 않아 불태워 버렸다.

B7 교도소에서 통역[52]을 붙여줬다. 한 달 후에 오사카 어딘가의 5층 건

물에서 재판[53]을 받아 45일 영창 살았다. 다시 입국관리청에서 10일간 조사를 받아 오무라수용소[54]로 갔다가 부산으로 와 다시 조사받았다. 1주일간 50명이나 되는 형사에게 조사 받았다. 반공법위반이라 해서 부산 내 각 경찰서로 20명씩 배치하여 재판까지 보호한다. 밀항 간 사람은 재판 없다. 난 여권법위반이라서 제주에서 벌금[55]을 50만원 냈다. 30만원 내는 사람도 있었는데 난 50만원 냈다. 연말이라 목표금액대로 다 내야했다.

B8은 일본에서 번 돈으로 작은 빌딩을 사서 집세를 받아 생활하고 있다. 현재 사회복지에 관한 학업 중에 있으며 일본에서 많은 사람들의 상담자 역할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노인이나 청소년들을 위해 일할 계획이다.

B8 한국에 돌아와 보니 마음이 너그러워 졌다. 일본문화를 이해하게 되니까 마음도 여유로워 졌다.

B그룹은 밀고에 의해 강제로 귀향한 사람들이다. B1, B2, B4, B5, B6, B8은 일본에서 어느 정도 돈을 벌어, 그것을 자본으로 하여 경제적으로 윤택한 생활을 하게 되었다. 반면, B3와 B7은 경제적인 면에서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일본에서 번 것은 일본에서 거의 소비하고 돌아온 경우이다.

52) 통역원은 한국 사람인데 일본에서 불법입국자로 걸려서, 6년 징역 사는 동안에 영창 안에서 일본말을 배워 감방장이 되었다고 한다.

53) 재판에서 집행유예 1년, 징역 2년의 선고를 받았다. 무료변호사에게 "나는 일본에 와서 잘못한 것 없다. 여권을 가지고 왔다"고 했다. 재판이 끝나니까 오후 5시경이었는데 수갑을 채워서 한사람 당 경찰 한사람이 따라 다녔다.

54) 오무라 수용소에서는 밥도 해먹을 수 있고, 수용소 안에 식당이 있는데 밥을 해먹으려면 식품비를 내야 한다. 한국에서 오무라 수용소의 비용을 부담한다고 들었다.

55) 30만원 내는 사람도 있었다.

Ⅶ. 맺는 말

지금까지 제주인의 도항에 대하여 고찰해 보았다. 도항자의 대부분은 자신들의 도항을 '놀난 일'[56]이 아닌 '부치러운 일'[57]로 여기고 있었다. 도항에 대한 이런 개인의 심리가 도항자들의 내면에 비교적 무겁게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조사과정에서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역사란 시·공간적으로 일어나는 사건, 혹은 시·공간적인 인간의 행위를 모두 포괄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도항이 비록 개인적으로는 미미하다고 생각되거나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제주사회로 볼 때 역사적인 인과관계를 갖게 되는 중요한 삶의 흐름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도항'이란 어떤 면에서는 극히 일반적이고 개인적인 경험에 불과하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사회공동체적으로는 총체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제주사람에게 바다는 '장벽'이라는 불안요소이기도 했지만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돌파구이기도 했다. 즉 도항은 제주에서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취해진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으로의 이동이었으며, 동시에 제주보다 경제가 발달한 곳으로의 진출이었다.

나는 본고에서 도항의 방법을 합법적 도항과 비합법적 도항으로 분류하였다. 하지만 합법적 도항은 시대상황이 일제강점기였다는 것, 그리고 그 때의 공간이동이 일제 식민지법을 적용받는 국내 이동, 즉 내지(內地)이동이었다는 특수성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비합법적 도항 이라는 개념은 해방 후 자주권이 있는 국가에서 국경이 구분된 후의 도항이라는 점에서 일제강점기의 합법적 도항과는 상황

56) '놀난 일'이란 '내세울만한 일'이라는 의미의 제주방언이다.
57) '부치러운 일'이란 '부끄러운 일'이라는 의미의 제주방언이다.

이 아주 달랐다. 해방 후의 합법적 도항은 유학이나 여행 등의 명료한 목적이 있을 때 가능했기 때문에 출·입국절차가 매우 까다로웠다. 그래서 제주사람들은 장기체류를 목적으로 비합법적 도항인 밀항을 택하여 불법체류도 감내했던 것이다.

해저에 가라앉아 있는 보물을 끌어 올리듯 조심스럽게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온갖 회생을 치러내고 벌어온 그들의 경제적인 재화는 오늘날 제주사회의 밑거름이 된 것이 사실이다. 그들의 노고는 자신이나 가족을 넘어서 제주 지역 공동체로 이어지는, 새로운 의미를 갖는다. 그러므로 제주사람들의 일본도항은 도항자 개인의 문제인 동시에 또한 재일제주인과 제주사회 공동체의 사회적 문제이기도 한 것이다.

밀항을 통해 현실에서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간 그들에게 존경을 표한다.

참고문헌

강만길, 『韓國近代史』, 創作과 批評社, 1984.

강만길 外, 『한국현대사회운동사전』, 열음사, 1988.

강재언, 『재일한인의 갈등과 도전』, 고성중 옮김, 북제주문화원 2005.

고광민, 『濟州島浦口硏究』, 도서출판 각, 2004.

고선휘, 『在日濟州島出身者の生活過程 關西地方を中心に』, 新幹社, 1996.

고선휘, 『20世紀の滯日濟州島人ーその生活過程と意識』, 明石書店, 1998.

고선휘, 『일본으로 돈벌이 간 제주도 사람』, 고성중 옮김, 북제주문화원, 2007.

김봉옥, 『제주통사』, 제주문화, 1990.

김성례, 「근대성과 폭력:제주4·3의 담론정치」, 『제주4·3연구』,역사비평사, 1999.

문경수, 「4·3사건과 재일 한국인」, 『4·3과 역사』, 제주4·3연구소 편, 각, 2001.

석주명, 『濟州島 隨筆』, 서울: 寶眞齋印刷所, 1968.

이진희 외, 『한일교류사』, 옮긴이 김익한 외, 학고재, 1998.

임종국, 『日帝侵略과 親日派』, 靑史, 1982.

장삼식, 『漢韓大辭典-大字源』, 서울 : 삼성출판사, 1988.

전은자, 「바다를 건넌 사람들, 제주인과 도항문화」, 『제15회 국제학술대회』, 한국일본근대학회, 2007.

정재정, 「한일국교정상화조약,무엇이문제인가」, 『한일관계2천년-보이는 역사 보이지 않는 역사』, 한일관계사학회 편, 경인문화사, 2006.

정혜경, 「1930년대초반오사카지역협동조합과조선인운동」, 『한일민족문제연구』, 한일민족연구회, 2001.

정혜경, 『조선인강제연행·강제노동1-일본편』, 선인, 2006.

在日本濟州道民會編, 『日本의濟州魂-在日本濟州道民會30年史』, 在日本濟州道民會, 1993.

제주노동상담소 일하는 사람들, 『제주경제와 지역노동실태』, 새길, 1992.

제주도·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 「구술로만나는제주여성의삶그리고역사」, 파피루스, 2004.

제주도청, 「濟州島勢要覽」, 『濟州島의經濟』,홍성목역,제주시우당도서관, 1999.

제주도청, 「제주도세요람」, 『제주도의 경제』, 홍성목 역, 제주시우당도서관, 2005.

泉靖一, 『濟州島』, 東京大學出版部, 1966.

우에다코오이치로오(上田耕一郎), 『濟州島의經濟』,홍성목역,우당도서관, 1999.

카와이 아츠시(河合 敦), 『하룻밤에 읽는 일본사』, 원지연 옮김, 랜덤하스코리아(주), 2004.

杉原達, 『越境する民』, 新幹社, 1999.

마수다 이치지(桝田一二), 『濟州島의地理學的硏究』,홍성목역, 제주시우당도서관, 2005.

桝田一二, 『濟州島の 地理學的 硏究』, 弘詢社, 1976.

山田昭次, 『朝鮮人戰時勞働動員』, 岩波書店, 2005.

W.G. 비즐리, 『일본근현대사』, 장인성 옮김, 을유문화사, 2004.

Abstract

Study on Jeju People's Sailing for Japan

Jeun, Eun-ja*

Jeju people started sailing for Japan in the late Chosun Dynasty that is also the Meiji period and later more frequently during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up until the Liberation. There were some reasons why they continued to seek to cross the water in various ways; Japan was a country where more advanced industries prospered than in Korea and moreover it is closer to Jeju geographically, which was seen as a very attractive labor market for Jeju islanders to make money. A lot of people made passage to Japan. Some of them settled down and some others came back home with various reasons.

Especially, in Osaka, Japan, plenty of Jeju people had lived even before the Liberation, which led many more Jeju islanders to go to Osaka. It meant that there has already been a 'Social Network' of Jeju people in Jeju and Osaka since the Japanese Colonial Rule and they have shared social bonds and same-town mentality forming a good community. For Jeju people, Japan was considered a true place of opportunity where they could get jobs to solve their financial as well as social problems, better than in their own country.

When I started working on this study, I tried to give a historical significance to the Jeju people who returned to Jeju again after they had gone over to Japan, which has not been known well to us. I studied on

* Special Researcher of Cheju National University Museum

why and how they sailed for Japan, how they lived there and, in case of coming back home, how their lives changed.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the interviews of 16 Jeju people who returned home from Japan.

They risked their lives, crossing the border. They made all the possible sacrifices to make it. It is true that the money they earned there has become a foundation to build today's Jeju. Their sufferings there have new meanings now, beyond themselves, their own family and Jeju local community. Accordingly, their crossing is not just an individual issue but also for a social one of the Korean-Japanese as well as Jeju community as a whole. Still today, people in Jeju yearn to go to Japan and some of them actually cross the border for the advanced developments and higher-paid jobs backed by its strong capital market with high exchange rates.

Key Words

Japan, Jeju, Going over to Japan, Homecoming, Jeju People, Korean-Japanese, Osaka, Smuggling away, Legal going over to Japan, Illegal Going over to Japan, Illegal migrant worker

교신 : 전은자 690-84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2585-2
e편한세상APT 107동 201호
(E-mail : jeunchi@hanmail.net 전화 : 016-690-3298)

최초 투고일 2007. 12. 30
최종 접수일 2008. 1. 21